

주시경의 〈國語文法〉 연구(1)*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박 종 갑

〈목 차〉

I. 머리말	2.231 〈기뭍박굴〉의 설정 필
II. 〈國語文法〉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요성
관계	2.3.2 〈기뭍박굴〉과 통사론 기
2.1 주시경 문법의 언어관 및 문	술의 효율성
법관의 특징	2.3.3 〈기뭍박굴〉의 통사론적
2.2 〈기〉의 문법적 본질	의미
2.2.1 {기난갈1}에서의 〈기〉	2.3.4 통사론적 형태론
2.2.2 {기난갈2}에서의 〈기〉	III. 마무리
2.3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	

I. 머 리 말

주시경의 〈國語文法〉¹⁾은 {국문의 소리} - {기난갈}의 [기난갈의 쓰는 뜻]-[기난틀]-[기난익힘], {짚듬갈}, 다시 {기난갈}의 [기갈래의 난틀]-[기뭍박굴]-[기뭍힘]-[기뭍박굴]과 같은 순서로 그 체제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신 부산대학교 최규수 교수께 감사드린다.

1) 이 책은 〈주시경(1910). 〈國語文法全〉. 京城: 博文書館을 가리키는 것인데, 1913년에 간행된 〈朝鮮語文法〉은 이 책의 일부분을 고친 것이다. 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 (1977), 제1부 4책에 두 책이 모두 영인되어 있다. 그리고, 〈고영근·이현희 校註 (1986). 〈周時經, 國語文法〉. 답출판사)도 있다.

가 구성되어 있다. {기난갈}은 일단 오늘날의 형태론에, {짚듬갈}은 통사론²⁾에 대응되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國語文法〉은 말을 〈기〉와 〈다〉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pp. 36-37), 〈기〉는 형태론적 단위에, 〈다〉는 통사론적 단위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國語文法〉은 {짚듬갈} 앞에 위치한 {기난갈}에서의 〈기〉와 그 이후에 위치한 {기난갈}에서의 〈기〉는 그 문법적 개념이 달라 보인다.

〈國語文法〉의 문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업적들이 축적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앞선 연구들은 〈기〉설정 기준이나 〈기〉에 대한 여러 하위부문에서의 기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에 대한 문법적 기술을 일견하면, 그와 같은 평가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³⁾

그런데, 한 문법가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문법기술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법체계 전반(문법모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정한 부분의 문법기술이 전반적인 문법모형과 부합하는 것이면, 그것이 오늘날의 기술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⁴⁾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대상은 문제의 문법모형이 국어문법학사적 맥락속에서 얼마나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냐의 기준이나⁵⁾ 국어의 전반적인 문법적 특성을 얼마나 효

2) 〈國語文法〉의 통사론은 문장의 통사·의미·화용론적 특질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사론보다는 문장론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편의상 통사론이란 용어를 쓴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지적은 이병근(1985 : 36-38)을 보라.

4) 이와 같은 관점을 제시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고영근(1982)이다.

5) 주시경의 〈國語文法〉이 유길준의 〈大韓文典〉으로 대표되는 전시대의 문법보다 얼마나 발전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앞선 연구들에서 잘 밝혀져 있다. 자세한 것은 유창균(1969), 강복수(1972), 권재선(1989) 등을 참고하라. 그리고 〈기〉와 관련된 주시경 문법의 내적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최낙복(1988)을 보라.

울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점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에 대한 문법적 기술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의 요체는 그것의 전반적인 문법모형에 문제의 기술방식이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된다. 〈國語文法〉에 대한 앞선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상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철저하지 않다.

본고는 〈기〉와 관련된 여러 기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의 문법적 본질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의 문법적 본질에 대한 탐구는 〈國語文法〉이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는데, 이는 〈國語文法〉의 전반적인 문법모형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작업이 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 째듬갈 }이전의 { 기난갈 }을 { 기난갈1 }이라 하고, 이후의 { 기난갈 }을 { 기난갈2 }라 하여 구분한 다음 각각의 〈기〉에 대한 문법적 기술을 중심으로 〈기〉의 문법적 본질을 따져, 〈國語文法〉에서 설정하고 있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한다. { 기난갈2 }에서는 [기몸박굼]에서의 문법기술을 중점적으로 따진다. 그리고 〈國語文法〉의 그와 같은 전반적인 문법모형 속에서 〈기〉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법기술의 여러 특징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후속 논문에서 진행할 것이다.

II. 〈國語文法〉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

2.1 주시경 문법의 언어관 및 문법관의 특징

〈國語文法〉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주시경 문법의 언어관과 문법관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경의 언어관은 언어를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언어를 사회 구성과 운영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언어가 없으면 인간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움직여질 수도 없다고 했다. 이는 곧 언어를 사회 형성의 機關으로 보는 관점이다. 언어가 가진 의사소통의 기능에 의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관에 따라, 주시경은 문법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보았다.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말과 글을 잘 드러내는 데 필요한 일정한 법칙이 ‘말의 법칙’이요 문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시경은 언어가 이 세계에서 갖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법을 규정하고 탐구한 것이다.

주시경은 문법을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말과 글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문법의 연구 대상도 그와 같은 문법의 의의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문법을 문장론 즉 통사론 위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⁷⁾

2.2 <기>의 문법적 본질

2.2.1 {기난갈1}에서의 <기>

〈國語文法〉 형태론에서의 문법단위(grammatical unit)는 <기>인 것

-
- 6) 주시경 문법의 언어관과 문법관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고영근(1983(1979))에 있다. 그리고 주시경의 언어관 및 문법관의 특징이 구체적인 문법기술방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줄고(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된 여러 참고문헌도 같은 논문의 참고문헌목록으로 미룬다.
- 7)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효율적인 통사론의 문법기술을 염두에 두고 형태론을 기술한 것이라든지, 통사론이 문장의 통사·의미·화용론적 특질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는 최현배 문법의 언어관과 문법관,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문법기술에서 구현되는 방식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자세한 것은 고영근(1982, 1987), 줄고(1994) 등을 참고 하기 바란다.

으로 보인다. {기난갈}에서 <기>를 기본적 단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란 어떤 성질을 구성요소인가? 우선 그 정의부터 보자.⁸⁾

기는 낫 말을 이르는 것으로 씀이니 여러가지 몬(物이라 하는 말이니 東言解에 있는것)이나 일을 따르어 이르는 말을 각각 부르는 이름으로 씀이라 (p.27).

기는 낫 말을 이름이니 한 낫 몬이나 일을 이름이라(p.36)

‘여러가지 몬을 이르는 말’은 낱말의 실질적 요소를, ‘일을 따르어 이르는 말’은 기능적 요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김석득, 1983 : 258-59). 이와 같은 인식에 의해 실질형태소 부분과 문법형태소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기>가 형태소와 일치한다.

(1) (a) 아기입가것 젖임을것 먹음소것.

(b) 봄입이것 되움면잇 꽃임이것 피움오것.

그런데,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푸른’과 ‘빠르게’ 등은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기>로 처리하고 있음을 본다.

(2) (a) 저런 소임가것 푸른 풀임을것 잘어 먹음소것.

(b) 소리임가것 빠르게 가움오것.

그러므로, 주시경 문법의 <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늘날의 형태소도 아니고 단어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國語文法〉의 어떤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⁹⁾

8) 앞으로 〈國語文法〉에서 인용할 때에는 원전의 페이지 표시만 한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대략적으로 원전에 표시되어 있는 우권점을 따른다.

9) 〈國語文法〉은 ‘임, 엇, 움, 것, 잇, 언, 억, 놀, 꽃’과 같은 9개 유형의 기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것이므로 자세한 예는 생략한다.

2.2.2 {기난갈2}에서의 <기>

{기난갈2}의 [기몹박굼]은 {기난갈1}에서 하나의 <기>로 처리된 바 있는 <기몹>에 어떤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또 다른 <기몹>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새로 형성되는 <기>유형별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때 새로 형성되는 <기몹>도 하나의 <기>로 보므로, [기몹박굼]¹⁰⁾은 <國語文法>에서의 <기>의 문법적 본질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기몹박굼]은 그 문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일단 새로이 첨가되는 요소의 문법적 특징별로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정리해 본다. 설명의 편의상, 원래의 <기몹>을 ‘원기몹’이라 하고 논의의 계속하겠다. 예를 들어, <움기>인 동사 어간 ‘떡-’에 명사화 접사 ‘-기’가 연결되어 <임기>인 ‘먹기’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떡-’이 원기몹이 된다.

(A) 원기몹에 다른 요소가 통합되지 않고, 그것의 문법적 기능(grammatical function)¹¹⁾만 바뀐 경우

임기인 ‘모시’가 ‘모시옷’과 같은 쓰임에서는 후행하는 ‘옷’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기몹박굼>으로 보고 있다. 다음 (3)의 { }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몹>이 <임>에서 <언>으로 바뀐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4)의 자료에서 { }한 부분의 기능과 동일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3) (a) { 내 } 붓(p.109) : (내)_임 → (내)_언붓

(b) { 나무 } (때문에) (p.109) : (나무)_임 → (나무)_언때문에

10) [기몹박굼]은 <國語文法>의 하위부분으로서의 ‘기몹박굼’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몹박굼>은 문법적 기제로서의 ‘기몹박굼’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하여 쓴 것이다.

11) 앞으로는 그냥 ‘기능’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겠다.

(4) (a) {나문} (때문에) (나무인 때문에) 걱정이다.

(b) 그것은 {나의} (붓)이다.

(B)원기몸에 접사가 통합된 경우 (pp. 102-03)

파생접사 뿐만 아니라, 굴절접사 중 이른바 자격법 어미의 일부도 포함시키고 있다.

(B-1) 굴절접사가 통합된 경우

(5) (a) ((검)엿 + 음)임, ((가)옴 + ㅁ)임

(b) ((히)엿 + ㄴ)언, ((검)엿 + 은)언

(c) ((가)옴 + 지)임, ((먹)옴 + 지)임

(B-2) 파생접사가 통합된 경우

(6) (a) ((일)임 + 하)옴, ((나무)임 + 하)옴

(b) ((해)임 + 립)엿, ((사람)임 + 슥)엿

(C)원기몸에 ‘불완전한 실사’가 통합된 경우(p. 105)

준자립형식인 의존명사나 서술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보조용언 등이 통합된 경우도 〈기몸박굴〉으로 다루었다.

(C-1) 의존명사가 통합된 경우

(7) (a) (((배호)옴 + 는)언 + 것)임

(b) (((말)임 + 하는)언 + 줄)임

(C-2) 보조용언이 통합된 경우

조동사 ‘하-’가 통합된 경우는 문제의 구성성분구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게는 하-’에 대한 두 가지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은데, 그 중(a)의 방안이 더 좋을음을 언급하고 있다(p. 105). 그리고, ‘먹음직하다, 쓸만하다’ 등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8) (a) (((크)ㄹ+개)ㄹ+는)ㄹ+하-)용

(b) (((크)ㄹ+개)ㄹ+는)ㄹ # 하(남이)

지금까지 보았듯이, [기뭍박굴]에서 다뤄지는 <기>에는 오늘날의 이른말(旬)에 해당되는 언어형식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기>라는 단위의 문법적 실체가 모호해지는 느낌을 갖는다. 실사와 실사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통사론적 구성(syntactical construction)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기>로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國語文法〉에서는 이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실사에 자립성이나 서술기능이 완전한 실사가 결합된 경우는 <기뭍박굴>의 영역 안에 넣지 않고 있다. 즉, 다음에서 (9ab)는 <기뭍박굴>으로 다루고 있으나, (9c)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9) (a) 배호는 것, 말하는 줄

(b) 가게는 하-, 크게는 하-

(c) 흰 조히, 검은 먹(p.96)

(9c)와 같이 관형어에 완전한 자립형식인 명사가 결합된 경우는 <기>의 차원이 아니라 <다>의 차원에서, <다>중에서도 <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흰 조히’, ‘검은 먹’ 등은 그것의 각 구성요소가 모두 자립형식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물+오리’, ‘겹+웃’, ‘뽕+나무’ 등과 같이 그 구성체가 합성명사에 해당되는 것도 그 전부를 하나의 <기>로 다루지 않고 있다. 물_물/물_물오리, 겹_물/겹_물웃, 뽕_물/뽕_물나무 등 107-108과 같이 선·후행요소를 분리하여 선행요소의 <기>가 바뀐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그것들의 구성요소들이 모두 자립형식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기뭍박굍]에서 하나의 〈기〉로 다뤄지는 범위의 상한선은 후행요소가 준자립형식이거나, 보조용언과 같이 서술적 기능이 불완전한 경우까지라고 요약할 수 있다.

2.3 〈기〉의 형태론과 통사론

2.3.1 [기뭍박굍]의 설정 필요성

그러면, {기뭍박굍}의 이와 같은 특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國語文法〉의 체제는 통사론에 해당되는 짚듬같이 형태론에 해당되는 {기난갈}의 여러 하위부문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특함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통사론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히 형태론적 관점에서 〈기〉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하게 아홉 기난이 각각 또 결애가 있는데 그 결애를 따르어 가르지 안이하면 어느 기 결애에 붙을것인지 알기 어렵음이 잇을지라 이러함으로 각 기 결애의 난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요 또 이것을 반듯이 이 알에 둘 것 이나 말듬을 알지 못하면 기난의 참 뜻을 깨듯기가 어렵은지라 이러함으로 말의 큰 듨만 이 알에 익히고 그 다음에 기결애의 난틀을 말하겠노라(pp. 35-36, 밑줄 필자)

앞에서 [기뭍박굍]의 특징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들도 〈國語文法〉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를 이와같은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올바로 확인할 수 있다.

〈國語文法〉은 말을 〈기〉와 〈다〉로 크게 분류하고, 〈다〉의 하위 유형으로 <모, 드, 미>세 가지를 세우고 있는데, 〈기〉가 모여 〈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뭍박굍>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기든지 서로 박구어 쓰지 못하면 말(바)을 꾸일 수가 없음으로 각 기의 결예를 서로 박구어 씌이 잇으니 이를 기몸박굼이라 이름이라(p.101)

<다>를 구성하는 <모, 드, 미>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접어두고, 문장이라는 단위를 예로 들어 따져보면, 다음에서 ‘먹(食)-’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고 관형어로 쓰일 수 있음을 볼 때 그것은 당연한 논리다.

- (10) (a) 소가 풀을 <먹>소.
(b) 풀을 <먹는>^언 소가 있소.

이와 같은 논리는 <다>를 형성하는 방법, 즉, <다>의 구성성분구조를 탐구하기 위해서도 <기몸박굼>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본고에서는 문장(sentence)의 층위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따지기로 한다.

2.3.2 <기몸박굼>과 통사론 기술의 효율성

<國語文法>의 통사론에서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의 하나가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이며, 구분도해의 방식으로 이것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해 보이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문장의 구성성분구조를 따질 때에는 문제의 어사가 그 문장 속에서 갖는 문법적 직능이 우선적인 관심사가 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보자.

- (11) (a) <먹이>^명가 많이 있소.
(b) <죽는> <먹기>^명가 쉽소.

(a)의 ‘먹이’는 파생어로서 명사이고 (b)의 ‘먹기’는 명사형으로의 굴절이다. 그러나 체언으로서의 직능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문장의 구성성분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그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¹²⁾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원기몸에 아무런 형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까

지 〈기뭍박굴〉으로 처리한 의도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의 직능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¹³⁾

그리고, 조동사 ‘하-’가 통합된 경우, 문제의 구성성분구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가게는 하-’에 대한 두 가지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12) (a) (((가)움 + 게)억 + 는)억 + 하-)움

(b) (((가)움 + 게)억 + 는)억 # 하(남이)

(a)는 ‘가게는 하-’와 같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체를 하나의 단일한 구성체로 보는 것이고, (b)는 둘로 분리하여 보는 것이다. 그런데, 〈國語文法〉에서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 중 (a)의 방안이 더 좋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움뭉 ‘가’에 ‘게’를 더하여 억뭉을 만들고 다시 만이갓기 ‘는’을 더하여 그 만이의 뜻이 잇는 억뭉이 되게하고 다시 ‘하’를 더하여 한 움뭉이 되게 한 것이라 이려함으로 ‘가게는’을 한 억뭉으로 보고 ‘하’를 남이로 보든지 ‘가게’를 한 임뭉으로 보아 임이로 삼고 ‘하’를 남이로 삼아 풀수 있는 것이라 그러하나 ‘가게는하’¹⁴⁾를 한 뭉으로 봄이 좋으니라(따옴표 및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p.105).

12) 최규수(1992)는 〈國語文法〉의 품사분류에 ‘가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3) 후속 논문에서 다루겠지만, 〈國語文法〉에서는 〈임기〉가 이른바 〈줄기결〉에 속한 임이(주어), 씬이(목적어), 남이(서술어)의 직능으로 쓰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다루고, 〈가지결〉에 속하는 글이(수식어)로 쓰이는 것은 특수한 현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모시’는 〈임기〉이므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예, -는 모시이다)로 쓰이게 되면 문법적 직능이 바뀐 것으로 보지 않고, 수식어로 쓰이면 문법적 직능이 바뀐 것으로 본다.

14) 〈國語文法〉, p.105에는 ‘가게는하’ 항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크게는하’라고 써 놓고 있는데, 오식인 듯하다.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國語文法〉의 전반적인 주안점을 고려하건대, 이는 문제의 방식이 통사론을 기술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어떤 경험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이상의 가능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문법기술의 큰 목표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의 기준으로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장의 구성성분구조 분석을 예로 들어 보자. 문장의 예가 없어 그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의 쓰임이라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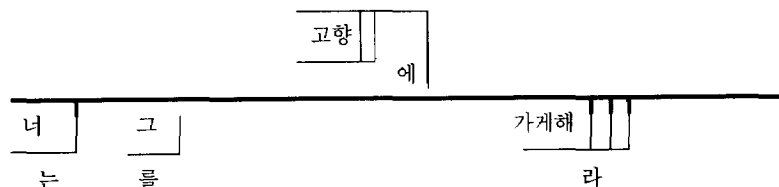
(13) 너는 그를 그 곳으로 가게{는/만/를} 해라.

밑줄친 부분을 하나의 단일한 구성체로 보는 방식이 해당 문장의 구성성분 구조의 일반성을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다. ‘가게는 하-’를 묶어서 하나의 단일한 구성체로 처리하는 것이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의 분석에서 전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14)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성분구조를 〈國語文法〉식으로 나타내면 (15)와 같이 될 것인데, ‘가게하-’와 ‘보내-’의 역할이 동일하게 서술어(남이) 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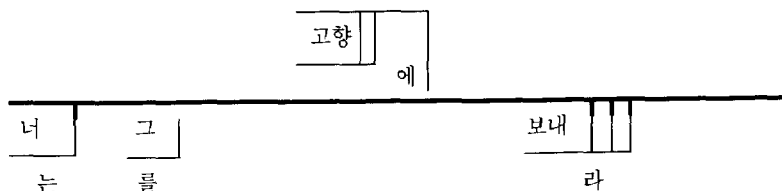
(14) (a) <너는>_{임이} <그를>_을 <고향에>_곳 <가게 해라>_{남이}

(b) <너는>_{임이} <그를>_을 <고향에>_곳 <보내라>_{남이}

(15a)



(15b)



오늘날의 학교 문법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이른바 ‘아 (어), 게, 지, 고’를 보조적 연결어미라 하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체를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그 문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존명사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교문법에서도 의존명사는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명사구로 처리되지 않는다. (16)과 같은 방식으로 보아 명사절이라고 할 뿐, (17)처럼 보아 관형사절과 명사구의 결합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예다.

(16) (a) <지구가 둥글다 는 것>NP은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b) 우리는 <그들이 친절히 대해 줄 것>NP을 기대했다.

(17) * (a) <<지구가 둥글다는>DP <것>NP은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 (b) 우리는 <<그들이 친절히 대해 줄>DP <것>NP을 기대했다.

2.3.3 <기똘박굴>의 통사론적 의미

그러면, <가똘박굴>에서 기똘이 바뀌었다는 것의 문법적 실체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우선 문제의 어사가 문장 속에서 갖는 문법적 직능이 바뀐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기뭍박굴]에서는 피동이나 사동의 접사가 붙어서 형성되는 자동사(피동사)와 타동사(사동사)도 포함시키고 있다. 자동사 어기(語基)와 타동사 어기를 ‘제움몌’, ‘남움몌’이라 일컫고, ‘제움이 남움 되게 하는 것’과 ‘남움이 제움되게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pp.112-14).

(18)

(A) 제움이 남움 되게 하는 것 : 줄- / 줄이-, 돌- / 돌우-, 묵- / 묵히-

(B) 남움이 제움 되게 하는 것 : 쓰- / 쓰이-, 걸- / 걸이-, 접- / 접히-, 감- / 감기-, 먹- / 먹히-등

자동사가 타동사가 되어도, 문제의 어사가 서술어가 되는 데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것의 문법적 직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점은 앞에서 다룬 여러 경우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논항의 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돌-’과 ‘돌아지-’, ‘줄-’과 ‘줄어지-’ 등과 같이 자동사의 능동형이 피동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아무런 바뀔일이 없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p.112-3), 이는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의 바뀔일이 없다는 뜻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國語文法>에서는 이 부분의 기술에서 문장의 예를 들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가정해 보면,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상의 바뀔은 없다.

(19) (a) 해가 뜬다.

(b) 해가 돌아지다.

그러나, <기뭍박굴>으로 다루고 있는, 자동사가 타동사로 되는 경우 ((A)의 경우)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의 바뀔이 있다.

- (20) (a) 등불의 심지가 돌아지다.
 (b) (내가) 등불의 심지를 돈다.

그리고,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경우((B)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바뀔이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 예문도 필자가 꾸민 것이다.

- (21) (a) 어머니가 실을 실구리에 감았다.
 (b) 실이 실구리에 감졌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뤄 보면, 〈기뭍박굴〉은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의 바뀔’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⁵⁾ 문체의 어사가 문장 속에서 갖는 문법적 기능이 바뀌는 것도 결과적으로 문장의 구성성분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물+오리’, 뽕+나무’ 등과 같이 그 구성체가 합성명사에 해당되는 것을 그 전부를 하나의 〈기〉로 다루지 않고 물_물/물_물오리, 뽕_물/뽕_물나무 등(p.107-08)과 같이 선·후행요소를 분리하여 선행요소의 〈기〉가 바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기뭍박굴] 바로 뒤에 위치한 [기뭍험] 부문에서는 ‘물불’과 같은 합성 명사를 예를 들고 〈모힌뭉〉이라 하여 하나의 〈기〉로 처리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힌뭉 둘로 붙어 둘 더되는 기가 모히어 한 기의 뭉으로 쓰이는것(본)
 물불 물도 한 뭉을 이르는 임이요 불도 한 뭉을 이르는 임뭉이니 물과 불이
 두 기라 그러하나 그 사람이 물불을 헤알이지 안이한다 할 때에는 물과 불
 을 합한 뭉의 한 기로 보아 이러하게 씀이니 이는 합한 뭉의 임기라(p.
 115).

15) 고영근(1987(1979) : 304)에서는 〈기뭍박굴〉이 문장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물불’과 ‘물오리, 모시옷’ 등은 모두 명사끼리 결합된 합성명사인데 두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처리한 원인은 무엇인가? 일단, ‘물불’은 대등적 합성어이고, ‘물오리, 모시옷’ 등은 종속적 합성어로 구분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불’과 ‘모시옷’을 예를 들면, ‘물불’은 앞뒤 요소가 대등적으로 결합된 것인데 비해, ‘모시옷’은 선행요소가 후행요소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의 관점에서 보면, <임기>의 기능에서 <언기>의 기능으로 바뀐 것이 된다.¹⁶⁾ 다음은 [기몸뻔]에서 첨가하고 있는 ‘(잡이)’라는 보충 설명인데, 그와 같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잡이) 모시옷 이는 모시와 옷을 합하여 한 몸으로 씌이 안이요 모시는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가르치어 언몸 노릇하는 임이라(p.116).

바로 앞에서 <기몸박굼>은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의 바뀔’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종속적 합성어는 [기몸박굼]에서 처리하고, 대등적 합성어는 [기몸뻔]에서 처리한 이유도 종속적 합성어의 이와 같은 내적인 구성성분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종합하면 <기몸박굼>의 문법론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2)

첫째, <기몸박굼>은 문제의 어사가 포함된 문장의 구성성분구조의 바뀔을 전제한다.¹⁷⁾

16) 앞의 주 13)을 참고하라.

17) ‘크기는 하-’와 같은 구성체의 경우, ‘크-’와 ‘크기는 하-’를 비교하면 둘 다 동일한 구조의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언급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크기-와’ ‘크기는 하-’를 비교하면 하나는 체언으로서의 직능을, 다른 하나는 서술어로서의 직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므로, 문장의 구성성분 구조의 바뀔을 전제하게 된다. <國語文法>의 해당 내용의 기본적인 기술 태도는 ‘크-’와 ‘크기-’를 비교하고, 또, ‘크기-’와 ‘크기는 하-’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둘째, 원기몸에 새로운 구성요소가 첨가되는 것은 〈기몸박굴〉의 필수적 조건은 아니다.

셋째, 〈기몸박굴〉에서 다루지는 최대 구성체는, 새로 첨가된 구성요소가 의존명사와 같은 준자립형식이거나 보조용언과 같이 서술적 기능이 불완전한 요소로 된 통사론적 구성까지이다.

2.3.4 통사론적 형태론

지금까지 고찰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國語文法〉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3)

(A) 형태론과 통사론은 구분되지만,

(B) 형태론은 통사론을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準據안에서 기술된다.¹⁸⁾

우선, 형태론과 통사론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한 자립형식끼리 결합된 구성체는 그 전부를 [기몸박굴]에서 다루지 않는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배호는 것, 가게는 하-’등과 같이 의존명사 및 보조 용언이 결합된 경우는 [기몸박굴]에서 다루고, ‘물오리, 겹웃, 뽕나무’ 등과 같이 합성명사로 보아야 할 경우는 그 구성체를 하나의 기로 다루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물_원/물_원오리, 겹_원/겹_원웃, 뽕_원/뽕_원나무 등(p.107-08)과 같이 선행요소의 <기>가 바뀐 것으로 본 것이 그 예다.¹⁹⁾

18) 〈國語文法〉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통사론(문장론)중심이라는 언급을 해 왔다. 김민수(1986), 고영근(1979), 홍양추(1980), 박영환(1982) 등이 그 예다.

19) 물오리, 겹웃, 뽕나무 등이 하나의 기가 아니라면 ‘다’의 ‘모’로 본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둘째, <기>와 <다>의 <모>를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흰 조히, 검은 먹’ 등은 완전한 자립형식끼리의 결합체이므로 <모>로 다루고 있다.

셋째, 형태론과 통사론의 용어를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²⁰⁾

다음으로, 형태론을 통사론적 準據안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근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제의 어사를 <기뭍박굽>으로 처리할 때, 그것의 형태론적 특성보다는 통사론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기>인 ‘나무’가 ‘나무 때문에’와 같은 문맥에서도 <언기>로 <기뭍박굽>된다고 본 것이 그 예다. 이 때 두 가지 <기>로 구분된 ‘나무’는 형태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문제의 어사가 형태적으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문법적 기능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기뭍박굽>으로 처리한 것이다.

둘째, 형태론적 구성을 통사론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물오리, 겹웃, 뽕나무 등과 같은 합성명사를 하나의 <기>로 다루지 않고, 물_원 / 물_원오리, 겹_원 / 겹_원웃, 뽕_원 / 뽕_원나무 등(p.107-08)과 같이 선행요소의 <기>가 바뀐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예다. 이는 형태론적 구성을 통사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다.

셋째, 활용의 결과와 파생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형태론적 차이보다는 그것들이 갖는 통사론적 특성의 동일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파생에 의한 것이든 활용에 의한 것이든 통사론적 기능을 따지는 데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넷째, 통사론의 효율적인 기술을 위해 통사론에서 다루야 할 대상을

20) 이병근(1985 : 39-40)에서는 형태론 기술에서 통사론적 기능을 고려하고 있지만, ‘씨갈’은 철저히 형태론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형태론과 통사론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태론에서 다루고 있다. 의존명사 및 보조용언이 결합된 경우를 〈기물박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앞에서 언급한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분에 대한 내용은 동시에, 통사론의 효율적인 기술을 염두에 둔 결과라고 볼 수 있어, 형태론을 통사론의 준거 안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사론적 구성 중 ‘배호는 것, 가게는 하-’등과 같이 의존명사 및 보조용언이 결합된 경우까지만 {기난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형태론과 통사론을 나뉘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지만, {기난갈}의 연구 대상을 그와 같이 확대한 것은 통사론의 효율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형태론의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기술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태론이 통사론과 구분되지만, 통사론의 효율적인 기술을 위한 준거 안에서 기술된다는 것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문법모형이 형태론과 통사론을 구분하는 관점보다는 통사론의 준거 안에서 형태론을 기술하는 관점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의 모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게 한다. 〈國語文法〉의 〈기〉는 현대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형태론적 문법단위에서, 부분적이지만 통사론적 문법단위로까지 확대되기도 하는 매우 독특한 성격이라는 점이 그 요체를 이룬다. 〈國語文法〉의 형태론은 통사론적 형태론인 것이다.

아울러, 〈國語文法〉에서의 〈기〉는 오늘날의 품사의 개념과는 문법적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품사는 형태론적 개념이다. 〈國語文法〉의 〈기〉도 형태론에서의 문법단위로 설정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國語文法〉의 형태론이 통사론적 準據 안에서 기술된 통사론적 형태론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기〉는 품사의 개념과는 달리 통사론적 형태론의 문법단위라고 정리할 수 있다.

Ⅲ. 마 무 리

〈國語文法〉의 문법론을 이해하는 데는 〈기〉의 문법적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며, 그것은 〈國語文法〉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법모형을 밝히는 데도 핵심적인 작업이 된다. 그리고 여러 하위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문법기술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문법모형에 얼마나 부합되는 것이냐의 기준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기난갈}의 여러 하위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에 대한 문법적 기술을 중심으로 〈기〉의 문법적 본질을 따져, 〈國語文法〉에서 설정하고 있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문법모형을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國語文法〉의 형태론이 통사론과 구분되지만, 통사론을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데 필요한 준거 안에서 기술되는 통사론적 형태론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 된다.

남은 문제 중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법모형의 관점에서 〈國語文法〉 형태론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새롭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여러 앞선 연구에서 논란 거리가 되어 온 문제를 중심으로, 〈國語文法〉의 형태론은 통사론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고, 형태론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술내용이 그와 같은 문법모형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이론 적용의 일관성’의 기준에서 고찰하는 작업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國語文法〉의 문법론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는 문법형태소에 대한 〈기〉 처리 방식의 자세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른바 자격법 어미에 대한 〈기〉 처리의 실상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따라서, 여러가지 유형의 굴절접사에 대한 〈기〉 처리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구명하는

작업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후속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진 (1986). 주시경의 품사 이론 연구 : 최현배 품사론과의 비교·분석. 〈한글〉, 191호. 한글학회.
- 강복수 (1972). 〈국어문법사연구〉. 대구 : 형설출판사.
- 고영근 (1979). 주시경의 문법이론. 〈韓國學報〉, 17. 일지사(고영근 (1983) : 268-88에 재수록)
- 고영근 (1982). 주시경의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 〈국어학〉, 11. 국어학회.
- 고영근 (1983). 〈국어문법의 연구 : 그 어제와 오늘〉. 서울 : 탑출판사.
- 고영근·이현희 校註(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권재선 (1989). 〈간추린 국어학 발전사〉. 대구 : 우골담
- 김민수 (1986). 〈주시경 연구〉. 증보판. 탑출판사.
- 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歷代韓國文法大系〉. 서울 : 탑출판사.
- 김석득 (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완진·안병희·이병근(1985). 〈국어연구의 발자취〉. 대학교양총서 17,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영환 (1982). 주시경의 품사전성론. 〈한남어문학〉, 7·8.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한글학회편(1987 : 527-46)에 재수록).
- 박종갑 (1993). 김규식의 〈朝鮮文法〉 연구 : 문장론을 중심으로. 〈용연어문논집〉, 6.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종갑 (1994). 주시경과 최현배의 문법모형 비교 연구(1). 〈권재선교수 화갑기념 논문집(미간)〉.
- 유창균 (1969). 〈新稿국어학사〉. 대구 : 형설출판사.

- 이기문 (1976).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학보>, 제5집. 일지사, pp.39-58(한글학회 편, (1987 : 573-92)에 재수록).
- 이병근 (1985). 주시경. 김완진·안병희·이병근(1985), 제1장(pp.3-57).
- 주시경 (1910). <國語文法>. 京城:博文書館(김민수·고영근·하동호 공편(1977). 제1부 제4책).
- 최규수 (1992). 주시경 문법에서 굴곡가치의 처리. <우리말 연구>, 2. 우리말 연구회.
- 최낙복 (1988). 주시경 말본의 형태론 연구. 박사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한글학회 편(1987). <주시경 선생에 대한 연구논문 모음>, 1.
- 허 응 (1971). 주시경 선생의 학문. <동방학지>, 12(한글학회편(1987 : 1-73)에 재수록).
- 홍양추 (1980). 주시경의 국어문법론 : 짚들개의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2·3, 부산 : 한국어문교육학회.